봄 맞은 백화점들 매장 새단장 왜 줄었나

불황에 비용부담 증가 겹쳐

롯데·신세계 개편 최소화
입점업체에 비용전가 금지
'특약매입 계약서' 영향

"봄이 다 됐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예년 같으면 벌써 화사하게 꾸며졌을텐데……."

지난 주말 봄 상품 쇼핑을 위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 김모(41)씨는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백화점의 모습에 조금은 실망했다. 경기 불황이라지만 봄을 맞아 예쁘게 변했을 매장을 기대했는데 당황이 될 정도였다.

봄 시즌 개편을 맞아 백화점 업계가 입·퇴점 브랜드를 관리하고 브랜드 간 매장 위치를 바꾸는 등 새 단장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올해는 규모가 대폭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브랜드 매장 개편(MD) 비율은 지난봄 개편 대비에 비해서는 소폭 늘었지만 2012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역시 폭은 작지만 개편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중단으로 입점업체가 철수하거나 반드시 입점시켜야 할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매장 개편과 자리 이동 등 변화를 최소화한 셈이다.

백화점 업계는 매장 개편이 줄고 있는 이유를 경기불황을 들고 있으나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말 개정 발효한 '특약매입 표준 거래계약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엔 정기적인 매장 개편과 리뉴얼 비용을 입점 업체가 부담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백화점측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매장바닥이나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비용은 백화점 몫으로 바뀌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백화점 사정에 따라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해야 하며 좋은 위치로 매장이동 등 입점업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도 전체 비용의 50%를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매장을 리뉴얼하면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장 개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패션 대기업 브랜드의 매장 확보와 신생 브랜드의 입점과 개편은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LG패션 '질바이질스튜어트'와 SK네트웍스 '세컨플로어' 등 젊은 층을 겨냥한 패션 대기업 브랜드는 백화점 매장을 새롭게 늘렸다. 블랙야크와 뉴발란스 등 스포츠·아웃도어 키즈라인과 인터넷쇼핑몰 인기 브랜드도 새롭게 백화점에 매장을 확보했다.

최근 젊은층과 남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만다리나 덕' '럭키슈에뜨' '가버' '시리즈' '프레디페리'등 브랜드들이 새로 입점하거나 매장개편을 완료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매장 개편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 상승과 백화점 품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개편은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 S5' 공개 24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모바일 언팩 2014'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행사에서는 갤럭시S5 외에도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3종도 함께 공개됐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 두암동 '이스토리' 100% 분양 완료

대한주택개발은 25일, '광주 두암동 이스토리'를 100% 분양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암동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이스토리'는 전용면적 223㎡(77형) 24세대, 176㎡(62형) 72세대 등 총 96세대 12개 동으로 지난해 12월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뒤 3일 동안 8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스토리'는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채택하여 보존과 개발 사이의 대립이 아닌 공존하는 주거공간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세대 남향설계, 계단형 배치로 조망권 및 일조권이 우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안전, 첨단 그리고 휴먼이 공존하는 내부는 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물론, 대형평형의 구성에 걸맞은 고품격 디자인과 우수한 내외장 마감으로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였으며, 최소한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내놓은 합리적인 분양가 등 다양한 장점이 조기 분양성공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스토리 관계자는 "뜨거운 관심에 감사 드린다"며 "미국 비버리힐즈처럼 명품 고급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건강과 웰빙을 꿈꾸는 자연친화적 최첨단 명품 주거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상해/항주/황산 4일 769,000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869,000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99,000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가각 5일 869,000
상해/곤명/석림/구향 5일 1,270,000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1,290,000
상해/계림/양삭 5일 1,140,000
※불포함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인천공항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터키, 그리스 일주 11일 출발일 4월 28일
ALL포함 3,490,000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990,000~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3/2,3/5,3/8,3/12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환영합니다.(발장1동씩 드립니다)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3/2,3/5,3/8,3/12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카멜리아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큐슈 3박4일 189,000~ ※불포함 : 왕복선박비, 호텔2박 출발일 3/2,3/5,3/8,3/12
항공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89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94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1,039,000
※불포함사항 : 중국단체비자(\33,000), 유류세(\100,000), 기사&가이드팁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유류할증료(\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식불포함, 자유석식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유럽 인천-터키 9일 1,990,000~ 특전 : 국내선 2회탑승, 발리댄스 포함
서유럽5국 10일 3,090,000~ 특전 : 융프라우+세느강유람선/에펠탑
괌/사이판 괌, 사이판 골드 4/5일 899,000~
중국 홍콩/심천/마카오 999,000~
대만/야류/화련 99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9 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굿바이? 10만원권 수표

5만원 보급 영향…6년만에 사용량 4분의 1토막

한때는 직장인들의 비상금용으로 애용되기도 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량이 6년만에 4분의 1로 줄었다. 무엇보다 5만원권의 보급 영향이 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만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 규모는 112만9000건(1129억원)으로, 2012년의 146만6000건보다 23.0%나 줄었다. 일평균 결제건수는 10만원권 수표 사용이 정점이었던 2007년(406만2000건)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10만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과 금융위기 등 영향을 받은 2008년(374만2000건)에도 전년보다 7.9% 줄어드는데 그쳤다. 그러나 5만원권이 6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에는 307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17.9% 줄고 이듬해인 2010년(247만7000건)에는 19.4%, 2011년(199만건)에도 19.7%가 각각 감소했다. 이어 2012년(146만6000건)에는 감소율이 26.3%로 확대됐고 작년에도 20%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줄어든 원인으로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다양화된 가운데 5만원권이 대량 보급된 점을 꼽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40조68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2%나 늘어 전체 유통 지폐액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1천조 돌파…4분기 사상최대 증가

한국 경제가 가계 빚 1000조원 시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특히 작년 4분기 증가액은 28조원에 육박, 2001년 4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0021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예금취급기관은 물론 보험사, 연기금, 대부사업자, 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다. 이미 지난 10~11월 사이에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기 통계인 만큼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9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계신용의 증가폭은 2011년 72조9000억원대에서 2012년 47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57조5000억원대로 커졌다. 무엇보다 작년 4분기의 증가액은 지난 2001년 4분기(24조8906억원)이후 2년만에 최대일 만큼 크게 확대됐다.

민효식 한은 금융통계팀 조사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은행과 공적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고 판매신용도 연말 계절요인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모기지,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4분기에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확대해야"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정기총회 성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5일 화순 하니움스포츠문화센터 만연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정기총회〈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종오 전남도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경기의 악화와 저가 하도급,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이 존폐위기에 있다"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 위치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사 및 전남지역 복지재단의 대학생 등 108명의 장학생을 선발,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남도회는 그동안 3170명에게 26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 광통신 부품기업 오이솔루션 코스닥 상장

광주에 본사를 둔 광통신 부품기업 오이솔루션이 코스닥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오이솔루션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으며 거래는 2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모가는 1만원, 액면가는 500원이다. 공모금액은 77억6900만원이며 상장주선사는 대신증권이다.

오이솔루션은 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체로 광전송장비(트랜시버)를 제조하고 있다. 지난해 1~9월까지의 매출액은 406억3000만원, 당기순이익 36억4000만원이며 자본금은 25억8900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64.86 (+15.81)	528.61 (+2.27)	2.86% (-0.01)	1072.90원 (-1.60)